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공무원도 아프면 신다' 정부 공무원 종합 관리 대책 마련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처음으로 세웠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진단을 강화하고 건강상 우려가 큰 공무원들은 해당 직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공무원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 주치의(가칭)'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022년에 109명으로 5년 새 43% 증가했다.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액 지급액도 같은 기간 1532억원에서 1868억원으로 22% 늘어났다.

인사처는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은 지난 2022년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이었는데, 2032년까지 재직자 1만명당 0.26명으로 낮추겠다는 것.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공유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이나 제3자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기관마다 신설되는 '건강안전책임관(국장급)'이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재해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과 기본원칙, 추진목표, 주요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SnackNews #공무원종합관리대책마련 #조진용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수성의 모습

유럽과 일본이 공동제작한 수성 탐사선 베피콜롬보가 수성의 모습을 역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담아냈다. 유럽우주국에 따르면 베피콜롬보는 수성과 165km 떨어진 거리까지 근접 비행하며 128장의 사진을 찍었다. 이는 역대 최근접거리로, 당초 계획보다 35km 더 가까이 수성의 남극 지역을 3대의 우주선 모니터링용 카메라(M-CAM)를 통해 근접 촬영했다. 탐사선은 최근접 거리를 통과한 지 4분 후 지름 210km의 '피크링 분지'인 비발디 충돌구를 포착, 몇 분 후엔 폭 155km의 새로운 피크링 분지를 포착해 스토다트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꿈 꾸며 공존하는 삶 이주민의 '몽상블라주'

전남도립미술관이 오는 12월8일까지 이주민의 인권과 다문화 존중에 대한 가치를 담은 '몽상블라주 The Assemblage of Dreams' 전시를 선보인다. 몽상블라주는 '몽상'과 '집합·조합'을 뜻하는 불어 '아상블라주'의 합성어로 '꿈들의 집합체'라는 뜻이다. 공존의 사회를 은유한다. 전시는 자신의 존재가 발생한 토대인 '태생지'를 의미하는 모태, '장소를 옮겨서 변한다'는 변이, '꿈들이 혼재한다'라는 뜻인 혼용 등 3개의 키워드로 나뉜다. 전남 출신 작가들이 포함된 5명의 한국 작가들과 6명의 해외작가들이 참여했다.



"가을엔 ACC와 함께하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다양한 북 행사를 펼친다. 상시적으로는 ACC아시아 문화박물관에서 기부 도서 수익금으로 지역 자립 청년을 돕는 '책 기부 캠페인'이 진행되고 27일~29일엔 싱가포르, 팔레스타인,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 작가들이 참여하는 제5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열린다. 오는 28일~29일에는 '밴드 재주소년', '오은 시인 등이 문학작품을 음향 공연으로 풀어가는 '북버스킹'을 문화정보원 북라운지에서 진행하고, 배우 차인표씨와 작가 궁씨가 ACC 극장3에서 북토크 행사를 개최한다.



400억 들인 잼버리 건물 '짓자마자 무용지물'

잼버리 건물로 알려진 전북 새만금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가 위탁 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다. 전북도가 429억원을 들여 건립한 청소년리더센터는 대회가 끝난지 10개월이 지나 완공됐다. 운영비도 매년 23억원이 지출돼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다. 전북도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부안군, 부안교육청을 운영 주체로 지목했지만, 기관들은 '운영비 없이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잼버리 건물로도, 청소년 센터로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셈. 당장 위탁 기관이 나타나지 않으면 운영 유지는 고스란히 전북도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